추가된내용

황만근의 다중인격

사인이유

부각해야할 내용

아내의 볼륜

마을사람들이 황씨아내모름

**황만근으 ㅣ다중인격**

민씨의 배신, 이유

발단

{

황만근이 죽고 민씨가 홀로남은 아들을 토닥이며 함께 집으로 감

}

전개

{

황만근이 자살을 말림

아들을 얻음

아내가 떠나고 마을사람은 황만근의 아내를 모름

아들이 커서 술취한 황만근을 차고 다님

황만근이 할머니한테 쩔쩔매는 모습

마을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임

효과음 마을방송

이장이 궐기대회를 추천하며 술을 마심

취함

}

위기

{

마을회관에서 나와 정상인으로 변하여 혼잣말

민씨가 봄

놀람을 감추고 집에가서 얘기

{

자네 어디출신인가? 말투가 이지역은 아닌ㄴ데.

아 그러고보니 제 소개를 안했군요 전2년전에 이웃군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

(아내와의 복선)

}

절정

{

황만근이 궐기대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씨를만나고

민씨가 황만근을 죽임

황만근이 바보인척을 했다는 사실과 아내의 볼륜이 들어남

{

그걸 어떻게..

마을회관밖에서 봤습죠.. 허나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숨겼나요?

주위를 둘러보게 나는 동네의 온갖 궃은 일을 도맡아 하며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부채에 시달리며 궐기대회까지 열어가며 살기 위해 애쓰네

과연 이럼에도 바보로 사는 나의 삶보다 빛을 갚기 위해 농사를 짓는 삻 이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민씨 나에게 왜그러는.

당신의 아내는 사실 제 전 아내 였습니다

비록 저를 버리고 떠나가 이제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저는는 아직도 그녀가 그리워 잠을 설치는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수 만 있다면 나는 무었이든지 할 것 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으니 저를 노여워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걱정 마십시오 곧 곁으로 보내드겠습니다

}

}

결말

{

민씨가 황만근을 죽이고 그를 기리는 글을 씀

황만근이 죽고 민씨가 홀로남은 아들을 토닥이며 함께 집으로 감

BGM 황만근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마안그은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찝원 여끈 팔푼 두 바리 하고 빠르게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 그은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